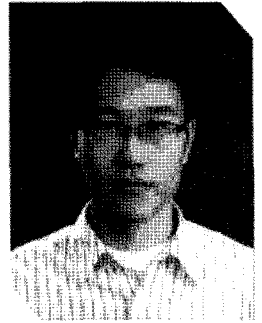


국내 반려동물사료 산업의 도약을 기대하며



지 상 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사

지난 4월 반려견 사료개발 연구 관련 정보 및 동향 파악을 위하여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펫푸드 포럼 2010에 참석했다. 펫푸드 포럼은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펫푸드 관련 메인 행사이며, 국내 업체관계자들도 자주 참석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 타인지 국내에서 참석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여, 본고에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펫푸드 포럼 내용 중 일부와 반려동물사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생각을 적었다.

■ 펫푸드 포럼 2010에서는

이번 펫푸드 포럼은 계속되는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석해 열띤 토론과 대화가 오고 갔다는 면에서 개최결과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는 분위기였다. 이 포럼에서는 해마다 시장 동향 분석 및 예측, 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및 경영 전략, 연구개발 동향에 대한 이야기들

을 주로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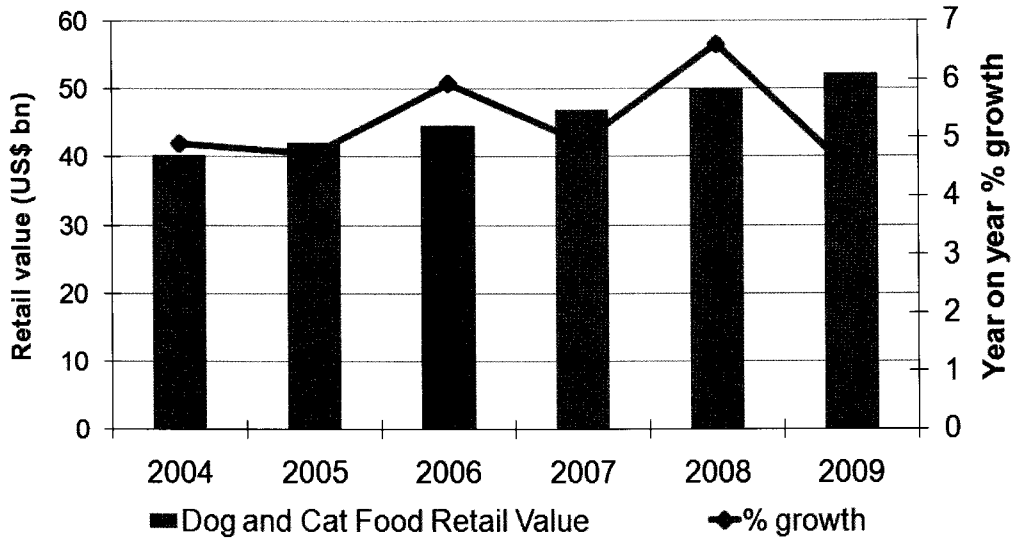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는 역시나 시장분석 및 예측에 대한 내용이었다. 2009년 세계 반려동물(개, 고양이)사료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P 성장한 미화 520억 달러였으며, 판매량 중 반려견 사료가 44%, 고양이 사료가 27%를 차지하였다.

또한 '14년까지 전세계 반려동물 사료 및 용품시장은 연간 2~3%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브라질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러시아 및 루마니아 등이 연간 10%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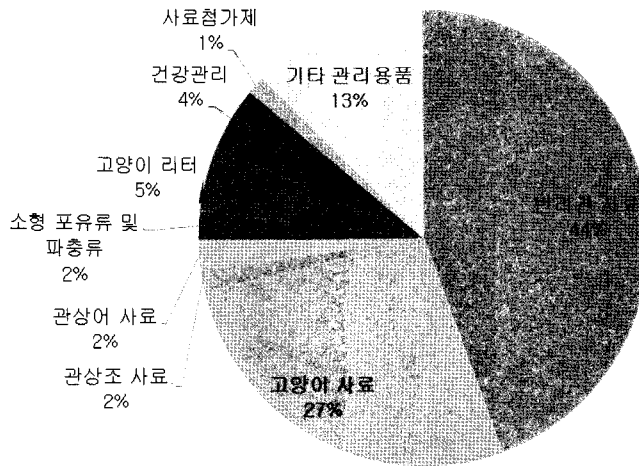
지역에 따라 성장률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꾸준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보유두수 증가(노령화와 도시화), 고급화(premiumization), 반려동물의 지위상승 등을 꼽았다. 국내 반려동물사료시장의 성장은 더디기는 하지만 꾸준

함을 보이고 있고, 국내 한 업체에서도 위의 추세를 반영하듯 소비자 수요에 특화된 기

능성이 강화된 제품들을 출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 세계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료시장 규모 및 성장률 변화(Euromonitor, '10) 〉



〈 세계 반려동물시장의 분야별 판매액 비율(Euromonitor,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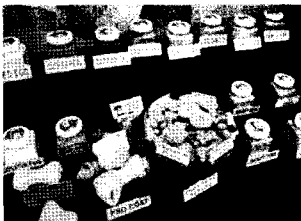
사실 이번 행사에서는 색다른 이슈거리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원료였다. 차별화된 원료사용을 통한 마케팅 전략은 비교적 식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어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원료에 이어서는 마이코톡신과 멜라민 등의 위해요소들의 신속검출을 위한 분석장비들이 관심을 모았고, 사료제조에만 주로 관심을 쏟다보면 간과하는 포장도 사료의 변질 방지를 위한 새로운 내부코팅소재나 연령별 구매층(특히 노령층 및 여성)의 편의도모를 위한 규격 및 디자인의 변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반려동물사료제조를 위한 에너지 및 탄소저감을 위한 기술과 전략들도 소개되었다.

그리고 펫푸드 워크숍에서 다루어진 또

하나의 주제를 언급하자면, 규정에 대한 사항이다. 미국의 반려동물사료 관련 규정은 사료제품의 적합성 평가방법, 제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과 표현방법 등에 대해 식품에 준하여 상세히 정의하고 있는데, 업데이트 될 때마다 펫푸드 포럼 등에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업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과대광고를 방지, 제품에 대한 투명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혼란의 최소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국내는 표기방법은 물론 용어 정의의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높다.

특히 영문을 국문으로 번역 표기하는 데 있어서 업체마다 제각각으로 표현하다보니 제품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전시된 신선하고 다양한 반려동물사료 원료 〉



〈 펫푸드 포럼 발표 및 토론 현장 〉

〈 위해요소 신속검출 관련 한 업체의 부스 〉

■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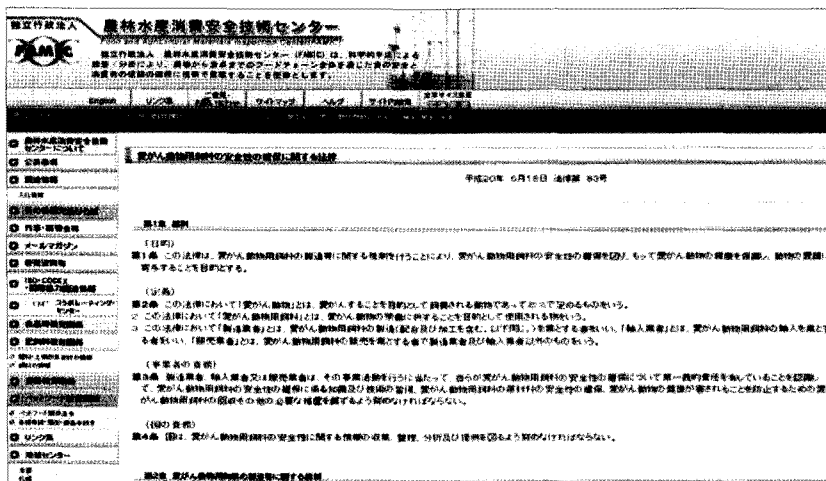
국내에도 앞서 언급한 세부적인 규정과 더불어 반려동물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현 시점에서 사료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반려동물의 지위에 맞지 않는 원료의 사용, 그리고 마이크로톡신이나 멜라민 오염 사고 등으로 펼쳐내기에는 이미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도 2007년 전 세계적으로 사료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까지 강타한 멜라민 파동은 반려동물사료의 안전관리 체계의 변화를 가져와, 그 동안 업계 자발적인 안전관리

체계에서 제도적 법규화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금년 9월부터 “펫푸드 안전관리법”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사료의 리콜시의 조치 및 책임소재, 합성 향산화제의 허용량, 마이크로톡신 검출허용 수준 등 그동안 소비자가 우려해오던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사료 관리법이 있으나 주로 가축용 사료에 대한 것으로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관리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혼선을 유발할 수 있어 별도의 관리법규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일본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홈페이지 〉

http://www.famic.go.jp/ffis/pet/hourei/sub1_houritu.html



■ 소비자들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교육기회가 필요하다

모든 산업에 있어서 마찬가지로지만 올바른 정보와 교육 기회의 제공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다. 잘못된 정보로 선입견을 가지게 된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이 소요된다.

반려동물사료 만큼 인터넷에 매니아층을 형성하는 제품도 드물고, 이들이 온라인 상에 올리는 정보량은 엄청나다. 하지만 이들 정보 중에는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없는 내용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만을 가려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와 이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 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도 이 같은 필요성을 인

식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

국내 반려동물사료산업에 있어서 축산분야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입장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이번 포럼에서 일리노이대 축산과 소속의 반려동물 연구진과 짧게나마 얘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는데, 그들 자신들도 미국 내에 얼마 안 되는 반려동물영양 연구 그룹이며, 연구진의 상당수가 펫푸드 관련 업체로 취업한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반려동물사료 분야의 리더 격인 미국 내에서도 펫푸드 연구 전문인력 양성이 아직 많지 않다는 사실과 축산분야에서의 축적된 기술이 반려동물사료 개발 및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내 반려동물사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반려동물사료 개발을 위한 연구, 그리고 전문인력의 육성 등이 갖추어져야만 할 것이다. ☒